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 등록...세계가 보호한다

광주지역 첫번째 람사르습지... 국제적인 생태 가치 인정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 포함 총 786종 서식 생물 다양성 풍부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국제적인 생태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주지역 첫번째 람사르습지이자 도심 인근 습지로는 한강범섬,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13일 환경부와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평두메습지가 이날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지정하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 습지란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물새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맺은 '람사르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습지다. 전남지역에는 순천 동천하구와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신안 장도 산지습지, 신안 증도 갯벌 등 5곳이 등록돼 있다.

평두메습지(광주시 북구 화암동 530 일원, 2.3ha)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지형 저습지다. 과거 경작지였으나 폐경 후 자연적 천에 의해 습지 원형이 회복되고 있는 대표적인 '묵논습지'다.

이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786종(식물 208종, 조류 49종, 포유류 7종, 육상 곤충 417종, 양서·파충류 12종, 대형무척추동물 85종, 어류 2종, 고등균류 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도롱뇽, 두꺼비, 무당·옴·참·큰산·청·계곡산개구리 등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평두메 습지 복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힘쓴 결과라는 것이 환경부의 평가다.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훼손구간은 심한 물길의 세굴(국부적인 침식)과 인근 경작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습지의 육상화 현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측은 다양한 습지 전문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북구 등과 함께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공정은 침식된 세굴부를 정비(진흙 차수벽 설치, 896㎡)하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식생물(코이어를·야자섬유를 이용해 채워진 통나무형 태)를 설치(516㎡)했다. 동·식물의 식생회복을 위해 생태저류지를 조성(18m×11m)조성하고, 배수로 주변 토사제거(60m)작업 등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복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출입로를 설정하고 희귀식물과 습지의 핵심구역을 보호했다. 습지의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토양을 반입하지 않았고, 친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복원 공법(진흙 차수벽, 식생물 설치)을 병행했다.

복원사업 결과 수생식물, 곤충, 양서류 등 다양한 종류를 먹이로 하는 최상위 포식자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삵(Ⅱ급), 담비(Ⅱ급), 팔색조(Ⅱ급)과 수달(Ⅰ급)을 포함한 너구리, 청둥오리, 원앙, 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광주시와 지자체가 도심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보호와 공간확대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심과 인근에 녹지와 습지 환경이 살아나고 생태계 건강성이 확보될 때 지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면서 "평두메습지뿐만 아니라 황룡강 천변과 광주천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원의 산지형 내륙습지인 평두메습지가 13일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등록은 국내 26번째이고 광주 지역 최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병의원 이용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일부터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확인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저출생 문제 전담 '저출생수석실' 신설

尹, 수석·비서관 인선 작업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힘을 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팔도 건축기행 - 제주목 관아·관덕정 ▶18면

타이거즈 전망대 - 8연승 두산을 막아라 ▶22면

15일 부처님 오신날 신문 쉽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May of All, May of One

추모제 5.17.(금) 10:30 국립5·18민주묘지	해방광주(시민난장) 5.17.(금) 11:00~15:00 금남로, 5·18민주광장	민주평화대행진 5.17.(금) 17:00 광주공원, 북동성당	전야제 5.17.(금) 19:00 금남로 무대	광주선인, 2024 5.17.(금) 18:30 금남로 무대	전국노동자대회 5.18.(토) 15:00 금남로 무대
국민대회 5.18.(토) 16:00 금남로 무대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토) 18:00 5·18기념문화센터	민중기사의 날 5.20.(월) 15:00 무등경기장	부활제 5.27.(월) 18:00 5·18민주광장	정부기념식 5.18.(토) 10:00 국립5·18민주묘지	2024 민족평화포럼 5.16.(목) 16:00 광주YMCA 무진관